

## 金昌謙의 『新羅 下代 王位繼承 研究』(경인문화사, 2003)를 읽고

권 덕 영\*

아날학파의 제3세대 선두주자인 자크 르 고프(Jacques Le Goff)는 1971년 미국 예술·과학아카데미에서 발간한 “DAEDALUS” 겨울호에 「정치사는 아직도 역사학을 지탱하는 根幹(backbone)인가?」라는 의미심장한 논문을 기고하였다. 이 논문의 제목을 본 순간 필자는, 르 고프가 정치사는 이미 한물 간 고루한 분야라는 말을 하겠거니 생각하였다. 그러나 논문을 다 읽고 난 후, 필자의 그러한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말았다. 르 고프는 이 논문에서 정치사는 역사의 근간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의 核心(core)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역사 연구자들은 정치사 혹은 제도사 보다는 문화사나 사회사 또는 日常史랄까 미시사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치·제도사는 진부하고 고루한 분야이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 역시 시대에 뒤쳐진 한심한 사람들로 치부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역사의 어느 분야이든지 정치·제도를 도외시하고서는 올바른 역사 연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필자 역시 르 고프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할뿐더러, 정치·제도사는 역사 연구의 바탕이라 확신한다. 평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필자에게 있어서 金昌謙 선생의 『新羅 下代 王位繼承 研究』는 가볍게 보아 넘길 책이 아니었다.

이 책은 저자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1994년에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원고를 다듬어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이 책은 본론 여섯 장을 포함하여 전체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한국고대사 전공

여덟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본서의 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1장 서론

### 제2장 王室系譜의 재구성

1. 가계 검토와 계보 작성의 기준
2. 각 왕의 가계 검토와 왕실세계도

### 제3장 왕위계승의 양상과 특징

1. 왕의 혈연관계와 계승방법
2. 태자책봉에 의한 왕위계승
3. 遺詔(願命)에 의한 왕위계승
4. 찬탈에 의한 왕위계승
5. 추대에 의한 왕위계승
6. 왕위계승의 혈연적 특징

### 제4장 高位官職과 왕위계승

1. 상대등과 왕위계승
2. 시중과 왕위계승
3. 병부령과 왕위계승

### 제5장 왕위계승과 叛逆

1. 시대적 상황과 반란의 발생
2. 각 시기별 왕위찬탈형 반역의 분석
3. 왕위찬탈형 반역의 특징과 영향

### 제6장 왕위계승과 骨品制 소멸

1. 왕실세력의 변천과 왕위계승
2. 왕위계승과 골품제의 기능 상실

### 제7장 고려 태조의 왕위 父子繼承 의식

1. 훈요십조 재 조 성립의 배경
2. 훈요십조 재 조와 왕위계승

## 제8장 결론

위 목차를 一瞥하면 짐작할 수 있듯이, 본론 첫 장은 신라 하대 왕위계승의 총론에 해당한다. 여기서 저자는 신라 하대 각 왕들의 가계를 검토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왕실계보를 복원함으로써 하대 왕위계승 연구의 기초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신라 하대는 귀족 연합정권으로서 왕위쟁탈전이 빈발하던 정치적 혼란기로 특징지어진다. 그래서인지 하대의 왕실계보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中代에 비하여 脫漏되었거나 혼동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하대의 왕실계보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지금까지 그다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종전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저자의 創見을 더하여 신라 하대의 왕실계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저자는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 왕실계보를 하나의 도표로 정리함으로써 신라하대 왕위계승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저자는 이하의 장에서 신라 하대 왕위계승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각론으로서 고찰하였다. 우선 본론 둘째 장에서는 하대 왕위계승을 정상적이거나 평화적인 형태와 비정상적인 형태로 나누었는데, 太子冊封과 遺詔(顧命)에 의한 왕위계승은 정상적인 형태이고 篡奪과 推戴에 의한 것은 비정상적인 형태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저자는 신라 하대 모든 형태의 왕위계승 사례와 정치적 배경을 정밀하게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은 외형상 父系繼承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로는 부자계승을 기본으로 하던 종래의 원칙이 엄연히 유지되었고, 그렇지 않게 보이는 몇몇 경우는 특수한 정치 상황에서 야기된 예외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찬탈과 추대 등의 비정상적인 왕위계승이 난무하던 신라 하대에도 종래 왕위계승의 기본원칙이 유지되었다는 다소 의외적인 결론을 이끌어 낸 저자는 본론의 셋째 장에서, 上大等·兵部令·侍中 등 고위직들과 왕위계승과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그것을 재차 입증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라 하대 20명의 왕 가운데 9명이 즉위 전에 상대등·시중·병부령의 고위직을 역임하였다. 이 점에 주목하여 종전에는 신라 하대의 비정상적인 왕위계승이 이루어질 때, 그러한 고위직 역임자에게 마치 왕위계승의 우선권이 주어진 것처럼 인식되었다. 그러나 저자는 상대등과 병부령 그리고 시중을 역임하고서 왕위에 올랐던 사람들을 분석하여, 그들에게 왕위계승의 우선 순위가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고 역설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대 왕위

계승의 기본적인 요인은 어디까지나 왕실과의 혈연적 관계이고, 상대등 혹은 시중과 같은 고위 관직은 왕위계승의 보조적인 요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곧 종래의 왕위계승 기본원칙이 신라 하대에도 여전히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어서 저자는 신라 하대에 빈번히 일어났던 반란과 왕위계승과의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신라 하대에 일어난 28 차례의 반란을 王位篡奪型 民亂型, 王朝否定型으로 나누고, 혈연적 관계를 기초로 하면서 정치·군사력을 이용하여 찬탈을 도모한 왕위찬탈형 반란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본서의 분석에 따르면 신라 하대의 왕위찬탈형 반란은 기존의 이해처럼 힘만 있으면 진골귀족 누구라도 일으켜 성공할 수 있던 것이 아니라, 반란의 주모자는 최소한 혈연적으로 앞의 왕 또는 재위 중인 왕의 父系親이어야만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신라 하대 왕위쟁탈전은 무질서한 권력투쟁이 아니라, 진골귀족들 사이에 나름대로 용인되는 룰(rule)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던 비정상적인 정치형태의 하나라 해도 좋을 듯싶다.

비록 어지럽기는 하였으나 나름대로 지켜지던 신라 하대 골품제적 왕위계승 원칙은 10세기 초 非眞骨 출신의 왕이 즉위함으로써 완전히 무너졌다 이 책의 본문 다섯째 장에서는 신라 하대 왕실세력의 변천과정을 4시기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추적하였다. 특히 저자는 神德王으로부터 시작되는 박씨 왕의 등장에 주목하여, 異姓親 사이의 왕위계승은 부자계승 원칙은 물론 골품제적 요건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 단정하였다. 아울러 박씨 왕실의 출현으로 야기된 진골 왕통의 단절과 변화는 신라왕조에 대한 지지기반의 이탈과 국가 통치체제의 이완을 낳았으며, 다각적인 골품제의 붕괴현상과 맞물려 마침내 신라 사회체제의 와해를 가져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신라 하대 왕위계승의 연장선상에서 고려 태조에 의한 왕위의 父子繼承 의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신라와 태봉 그리고 후백제가 왕위계승상의 혼란과 무원칙으로 인하여 마침내 멸망한 사실을 직시한 고려 태조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왕위계승 원칙을 명시하였다. 그것이 바로 訓要十條 가운데 제3조이다. 그 내용은 장자계승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次子가 계승하거나 또는 여러 자식들 가운데에서 추대 받은 자가 왕위를 계승하도록 한 것이

다. 따라서 고려 태조는 왕위계승의 혈족범위를 신라 하대의 그것과 달리 왕의直系孫으로 한정시킴으로써 왕위쟁탈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태조의遺訓은 이후 고려 왕실에서 비교적 잘 준수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저자는 이 책에서 복잡다단한 신라 하대 왕위계승의 전 과정을 다양한 자료에 기초하여 고증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그리고 신라 하대 왕위계승을 혈연집단의 갈등과 변화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상대등과 시중 같은 당시 고위직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각종 반란과 관련시켜 포괄적으로 고찰하였다.

게다가 본서는 종전의 통설에 대한 몇 가지의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신라 하대 왕위계승의 무원칙성에 대한 反論이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신라 하대사회를 왕위계승의 원칙이 무너졌고, 힘만 있으면 누구나 정치력 혹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왕위를 차지할 수 있던 무질서한 사회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왕위계승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하여, 박씨 왕 등장 이전의 신라에서는 왕위계승 원칙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엄연히 살아 있었음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기존 학설에 대한 일종의 반란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이 책은 종전 연구자들에게 복잡하게만 느껴지던 신라 하대 왕위계승의 실체에 보다 쉽고 가깝게 다가설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고 하겠다. 또한 이 책은 왕위계승이라는 窓口를 통하여 신라 하대 정치사를 조망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종전의 연구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 첫째, 史料考證의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라 하대 왕실계보와 왕위계승에 관한 기록은 매우 零星하다. 이럴 경우 연구자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나름대로의 치밀한 사료고증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여러 부분에 걸쳐 종전에 제시된 다양한 학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자신의 立論으로 삼고 있다. 물론 그러한 행위가 기존의 고증이 정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겠으나, 필요한 경우 저자 자신의 정치한 고증작업이 더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둘째, 신라 하대 왕위계승을 너무 단조로운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역사적 현상은 여러 사건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진 다 여러 개의 사실이 하나의 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의 사건이 여러 개의 사건을 초래하기

도 한다. 왕위계승과 같은 사건들에는 더욱 복잡한 변수가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왕위계승을 혈연관계와 국내 정치상황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주로 고려하여 설명하고 있다. 혈연관계와 국내정치가 왕위계승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당시의 경제·문화·사상·외교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고려했다면 보다 입체적으로 신라 하대 왕위계승을 조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사실 필자는 이 책을 평가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은 왕위계승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통하여 신라 하대 정치사를 通觀하려는 저자의 시도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필자의 무지로 간혹 새끼줄을 뱀으로 誤認한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까 우려된다. 그런 점이 있다면 저자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할 뿐이다.